

구세주의 중요성

에프 레이 하킨스
서울 선교부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이번 메시지에서는 구세주의 중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므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하여 안다는 것과 그를 안다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3장 17절은 하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5장 8절과 엘마서 5장 38절에도 같은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물몬서 8장 38절, 마태복음 7장 21~23절 및 25장 9~12절에 보면 많은 교회 회원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알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므로 영생의 축복을 받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을 구하고 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첫번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생애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고 나가자 다음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 사람 역시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바가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첫번째 사람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썩 잘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나갔습니다. 세번째 사람이 들어 왔습니다. 그는 질문을 받아, 말없이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번째 사람과 두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던 것입니다.

니파이이서 25장 26절에는 니파이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니파이인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많은 성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15절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서 1장 39절에는 주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

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역시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 있는지 알아야 할 일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주께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2.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드린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3.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 고통당하셨음을 개인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니파이일서 19장 9절에는 “...오로지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친절과 오래 참음으로 견디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본다든지 나를 위해서 베푼어 진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4.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과 같이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왕세자가 왕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사탄은 우리가 당하는 첫번째 힘든 시험에서 우리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시험을 견디어 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5.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문제점은 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할 필요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도울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대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6.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구절로 가득차 있습니다. 모로나이서 7장 28절에는 주께서 “...세상 사람들을 변호하실 것이요...”라고 되어 있고, 교리와 성약 112편 10절에는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교리와 성약 29편 2절에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 주께서 우리를 모으시리라고 되어있습니다. 엘마서 34장 16절에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리라 합니다. 물몬서 5장 11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팔에 안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구와 다른 많은 성구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특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주님에 관해 알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

서울 동 신학 연구원 개원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전철 역에서 약 300미터 지점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 동 신학 연구원의 개원식이 열렸다. 이 모임에는 한 인상 지역 대표, 고원용 동 스테이크 부장, 흥무광 북 스테이크 부장을 비롯한 여러 신권 지도자, 그리고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 소조스스끼 일본 교육 기구 대표가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하였다. 서 회철 한국 교회 교육 기구 대표는 인사 말씀으로 여러 신권 지도자들의 협조와 격려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으로 동 신학 연구원은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 그리고 신촌에 있는 서울 서신학 연구원은 서울 서스테이크와 서울 북 스테이크의 회원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로써 한국 신학 연구원은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에서 최초로 2개의 정규 건물을 가진 신학 연구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작곡 경연 대회”에서 수상 양 경신 자매 교회 본부 상호부조회 주최



서울 북 스테이크 제 9 와드의 양 경신 자매는 교회 본부 상호부조회에서 주최한 “1979년도 상호부조회 작곡 경연 대회”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작곡 부문에서 영예의 1등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동양의 교회 회원으로서의 양 자매가 처음으로 수상한 것이다.

이화 여자 대학교 작곡과를 졸업한 양 자매의 작품은 “시편 131편”이란 제목으로 된 혼성 4부 합창곡이었다.

지역 모임에 참석한 상호부조회 본부 임원은 이 작품을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작품이었다고 칭찬해 주었고 앞으로 많은 자매들이 이 작곡 경연 대회에 응모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 작품은 영어와 한글로 된 악보로 출판되어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구입할 수 있다. 한국 번역 출판부에서도 곧 구입할 수 있다.



서울 서스테이크 청년 음악회

지난 1979년 11월 24일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제7와드에서 서울 서스테이크 독신 성인 위원회 주최로 청년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김 창선 서울 서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가진 이 모임은 합창, 피아노 독주, 플룻 연주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엮어졌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독신 성인들의 음악적인 소양과 재능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서울 스테이크 독신 성인 로드쇼 경연 대회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스테이크 제4와드에서 최 육환 서울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로드쇼 경연 대회가 열렸다. 서울 스테이크 산하 와드와 지부의 독신 성인들이 참여한 이날 모임에서 와드/지부의 독신 성인들은 와드/지부의 명예를 걸고 열연하였다.

다채로운 소재로 재미있게 엮어 나간 이날 모임에서 제8와드가 일등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대구 중앙 지부 예배당 신축 기공식



지난해 12월 8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원두에서 이곳의 주민과 성도가 모인 가운데 대구 중앙지부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성도들이 오래 바라던 새로운 건물이 수성원두에 세워지게 되었다. 이날 기공식에 박 원걸 대구 중앙 지부장, 최 감수 대구 지방부장, 바버 형제,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이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대구 중앙 지부는 대지 350평, 전평 212평의 현대식 2층 건물이 세워진다.

부산 선교부장단 소개



전열 좌 이 호남 부산 선교부장, 전열 우 김 영우 제1보좌, 2열 좌 이 용호 제2보좌, 2열 우 김 석주 집행서기